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양향근 해설
<http://g.daejangbu.com/>

1. 다음 중 준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기력아
② 국말이
③ 애꾸눈아
④ 열무

[해설] 정답 ② '국말이'는 국에 만 밥이나 국수란 뜻으로 한글 맞춤법 4장 4절 27항에 나오는 합성어 규정이다.

[해설]

기러기야 -> 기력아
애꾸눈이야 -> 애꾸눈아
어린 무 -> 열무

2. 다음 중 예덕선생전이 실린 곳은 어디인가?

- ① 연암집(燕巖集)
② 열하일기(熱河日記)
③ 과농소초(課農小抄)
④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

[해설] 정답 ④ (2019년 10월 8일 모의고사 문제)
예덕선생전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한문 단편소설로《연암외집(燕巖外集)》의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에 수록되었다. 방경각외전에는 총 9편이 실려 있다. 마장전(馬駟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傳), 광문자전(廣文者傳), 양반전(兩班傳), 김신선전(金神仙傳), 우상전(虞裳傳), 역학대도전(易學大盜傳), 봉산학자전(鳳山學者傳)이 실려 있다.

- ▶작가: 박지원
▶연대: 정조 때(18세기 후반)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교훈적, 예찬적, 설득적, 실천적
▶주제: 바람직한 교우(交友)의 도(道)와 직업적 차별 타파, 엄행수의 무실역행(실천궁행)하는 삶
▶의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 인간성의 긍정과 평등사상이 담겨 있으며, 직업차별 타파 정신이 담겨 있다.
▶출전: 방경각외전

3. 다음 중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내용과 예문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쓴다.
예) 김 양수, 서 화담
②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김 선생, 민 박사
③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 만성골수성 백혈병
④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 한국 대학교 사범대학

[해설] 정답 ② (2020 국어 교재 1권 p. 136-138)

[오답 해설] ① 김양수, 서화담

③ 만성 골수성 백혈병(원칙), 만성골수성백혈병(허용)

④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원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허용)

4. 다음 중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② 전초병도 앞세우지 않고 가다가 적에게 가슴을 당했다.
③ 그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 유학까지 보냈다.
④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다.

[해설] 정답 ② (국어 교재 1권 p. 76)

문제는 '사동' 표현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피동'형 문장을 찾으면 된다.

②번 '당했다', '당하다'는 어휘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는 단어다.

5. 다음 중 사자성어의 한자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② 전전반측(輾轉反側)
③ 사필귀정(事必歸定)
④ 인과응보(因果應報)

[해설] 정답 ③ (국어 교재 3권 p. 80)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올바른 한자다. 문제에 있는 '정(定)'은 '정할 정'로 잘못된 한자 표기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소리는 호남의 ~

[중략]

오페라의 아리아에 해당하는 ㉠더늠

일상적 이야기에 해당하는 (㉡)

6.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명창의 장기로 인정되고, 또 다른 창자들에 의해 널리 행되어 후대에 전승된 것이다.
② 독창적이면서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주로 음악적인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③ 명창 개인의 이름이 붙게 되고,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을 말한다.
④ 명창이 한 바탕 전부를 다듬어 놓은 소리를 말한다.

[해설] 정답 ④ (국어 교재 2권 p. 232)

㉠'더늠'은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디'는 명창이 한 바탕 전부를 다듬어 놓은 소리를 말한다. 더늠이란 말은 '더 넣다'라는 뜻. 바디라는 말은 '선생님에게 받았다'라는 뜻.

더늠이 어느 특정대목을 이르는 것에 비하여 바디는 판소리 한마당 전체의 짜임새를 뜻한다.

참고로 판소리의 3대 요소는 '소리, 아니리, 발림'이다.

- ① 발림
- ② 추임새
- ③ 아니리
- ④ 창

[해설] 정답 ㉓ (국어 교재 2권 p. 232)
㉑앞에서 일상적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㉑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아니리'다.
아니리: 판소리에서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일상적 이야기의 말로 하는 부분을 말한다.

(가) 제임스 러브록이 말하는 사이보그는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다. 그는 사이보그를 오늘날 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후예로 자급자족하고 자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묘사했다. 이는 뇌를 제외한 팔다리나 장기를 기계로 바꾼 개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보다 AI 로봇의 의미에 가깝다.

(나) 제임스 러브록은 “사이보그를 생물의 또다른 계(kingdom)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인간이 동물계로서 식물계 위에 선 것처럼 우리 위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러브록은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발명은 노바세의 결실에 다가가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다) 지구를 하나의 작은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인간은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 지구 최상위층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 이론을 ‘노바세’(Novacene)에서 이렇게 밝혔다. 러브록은 “인간의 우위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미래에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드는 존재들이 우위에 설 것”이라면서 “난 그들을 쉽게 사이보그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라) 만일 지구가 멸망 위기에 직면하면 사이보그는 대규모 지구공학을 이용해 지구를 인간보다 자신들 환경에 맞게 바꿔놓으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 세계는 산소나 물을 필요하지 않은 사이보그에게 맞게 변해 인간의 생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지능이 매우 높은 사이보그들은 지구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지구를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가 - 라 - 다
③ 다 - 가 - 라 - 나
④ 라 - 나 - 다 - 가

[해설] 정답 ③
제임스 러브록의 "노바세"란 책의 내용이다. 선지의 시작이 모두 다른 번호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로 시작하는 문단, 용어에 대한 정의로 시작하는 문단이 첫 문단이 된다. 따라서, '가이아 이론'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나오는 (다)가 첫 문단으로 적합하며,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이보그'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고 이를 이어받아 (가)의 첫 시작이 '사이보그'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 -> (가)로 이어지는 ③번이 정답이 된다.

- ① 소래기: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 ② 장부꾼: 가래질을 할 때 가랫장부를 잡는 사람.
- ③ 세섯덩이: 개피떡 세 개를 붙여서 만든 떡.
- ④ 윤뚝뚝이: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리한 체하는 사람.

[해설] 정답 ③

- 셋불이: 개피떡 세 개를 붙여서 만든 떡.
- 세섯덩이: 김멜 때에, 떠서 앞으로 얹는 흠덩어리.

- ㉠ 구미(Kumi)
㉡ 학여울(Hangnyeoul)
㉢ 합덕(Hapdeok)
㉣ 왕십리(Wangsimri)
㉤ 구리(Guri)
㉥ 울릉(Ulreung)

- ① ㄅ, ㄌ, ㄛ
② ㄌ, ㄘ, ㄛ
③ ㄘ, ㄗ, ㄛ
④ ㄘ, ㄗ, ㄏ

[해설] 정답 ② (국어 교재 1권 p. 226)

구미[구미]는 'Gumi'
학여울[학녀울]과 같이 발음되므로 'Hangnyeoul'
합덕[합떡] 'Hapdeok'
왕십리[왕심니]는 'Wangsimni'
구리[구리]는 'Guri'
울릉[울릉]은 'Ulleung'

- ① 할머니는 꼼꼼하게 도토리 보크를 벗겨 내셨다.
- ② 원숭이는 먹이를 주는 대로 넙클넙클 주워 먹었다.
- ③ 외상값 대신에 고구마 엇셀을 했다.
- ④ 날씨가 추워 모시로 만든 햇옷을 꺼내 입었다.

[해설] 정답 ④
 핫옷: 옷 안에 솜을 두어 만든 옷을 의미한다. 모시X (교재 1권 p. 114)
 보닉: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교재 3권 p. 17)
 닝큼닝큼: 머뭇거리지 않고 잇따라 빨리. (교재 1권 p. 115)
 엇셈: 서로 주고받을 것을 비겨 없애는 셈. (교재 3권 p. 22)

- ① 높푸르다 ② 꽃고추
③ 시뻘꺨다 ④ 덧불이다

[해설] 정답 ① (교재 1권 p. 67-69)

① 높푸르다: 합성어(높다+푸르다, 병렬 관계)

② 풋고추: 파생어(풋(접두사) + 고추)

③ 시빨겉다: 파생어(시(접두사) + 빨겉다)

④ 덧불이다: 파생어(덧(접두사) + 불이다)

13. 다음 작품과 같은 문학 작품의 형식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업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 ① 4음보의 율격 유지한다.
② 3장 6구 45자 내외, 대체로 3·4조, 4·4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4음절로 고정한다.
③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라고 볼 수 있다.
④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해설] 정답 ② (교재 2권 p. 218, 229, 287)

지문의 작품은 '왕방연'의 '천만리 머나먼 길에'란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형식상 '시조'에 속한다. 시조는 고려 중기에 발생, 고려 말에 그 형식이 확립되어 조선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창작, 향유되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시(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지은 시)다. 임금이나 양반 등의 지배층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했으나 조선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평민, 기녀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3글자)로 고정한다.

이 작품은 조선 세조 때(1456년 6월) 의금부 도사로서 영월에 유배되는 단종을 호송하는 책임, 사약집행을 맡았던 지은이(왕방연)가 단종을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느낀 비통한 심정을 감정 입입(시냇물)의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 현대어 해석 >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어린 임금님(조선 단종)을 이별하고
허전한 내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냇가에 앉으니
저 시냇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며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14. 밑줄 친 맞춤법 표기가 올바른 것끼리 묶은 것은?

- ㉠ 날씨가 추워서 옷옷을 걸쳐 입었다.
㉡ 그는 책상에 앉아 있는 채로 윗물을 뒤로 젖혔다.
㉢ 산 윗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 그는 아랫니로 윗입술을 자꾸만 깨무는 버릇이 있다.
㉤ 그는 펜을 꺼내기 위해 웃도리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② (교재 1권 p. 191-192)

옷옷: 맨 겉에 입는 옷.

윗몸: 허리 윗부분의 몸.

위쪽: 위가 되는 쪽. ('윗' 뒤에는 된소리X. 윗쪽X)

윗입술: 위쪽의 입술.

웃도리: 허리의 윗부분. = 윗옷(위에 입는 옷). 웃도리X

15. 다음 중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셋별 - 새벽별
② 제가끔 - 제각기
③ 멀찌감치 - 멀찌가니
④ 심술꾸러기 - 심술쟁이

[해설] 정답 ① 새벽별X (교재 1권 p. 162-166)

'셋별'은 1. '금성(金星)'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 장래에 큰 발전을 이룩할 만한 사람.

여기서 '새'는 '동쪽' 또는 '흰[白]'을 뜻한다.

16. 다음 중 표준발음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 형은 꼬리만 먹겠다던 붕어빵을 야금야금 질반을 더 먹었다.
- 낮선 사람이 알은척을 한다.
- 흰 눈이 쌓인 거리를 건다.
- 양가(兩家) 부모님들의 상견례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 ① 야그마금, 나썸, 싸힌, 상견례
② 야그마금, 난썸, 싸힌, 상견네
③ 야금냐금, 난썸, 싸힌, 상견네
④ 야금냐금, 난썸, 싸인, 상견네

[해설] 정답 ④ (교재 1권 p. 180, 183)

- 야금야금 [야금냐금, 야그마금]

- 낮선[날썸] 참고: 낮설다[날썰다] 형용사

- 쌓인[싸인] 참고: 쌓이다 [싸이다] 동사

- 상견례[상견네]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신라[실라] 천리[철리]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상견례[상견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17-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언어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찰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파울의 말로 대변된다.

(나)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쉬르는 언어학적대장부학원 현상들의 서로 다른 접근의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키기 위하여 공시태, 통시태라는 이원론을 도입했다. 공시태는 “정해진 시점 혹은 일정한 시기에 어떤 언어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 언어의 모습”을 의미한다. 반면 ㉡통시태는 “그 언어가 시간축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다) 소쉬르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쉬르는 특정한 시점의 언어구성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상의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인 과정을 연구한다고 해서 현재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의미하는 공시적인 상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물론 언어 상태라는 것은 변한다. 하지만 언어 상태가 변한다는 사실도 언어가 공시적인 체계라는 사실에 아무런 변화

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이렇게 소쉬르는 언어대중들 앞에서 언어는 변화가 아니라 상태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라) 그러므로 언어 상태를 연구해야 할 언어학자는 “과거를 제거”해야 한다. 언어학자의 작업은 언어의 전체성 밖에서 어떤 관찰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언어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이 입증되는 어떤 초월적 지점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7. 다음 중 보기의 지문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은?

< 보기 >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대중들은 그러한 변화를 인식할 수 없다.

- ① (가)의 뒤
- ② (나)의 뒤
- ③ (다)의 뒤
- ④ (라)의 뒤

[해설] 정답 ③ 지문의 복원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언어 학자인 소쉬르의 언어 구조학과 관련된 내용이 지문으로 사용되었다.
보기의 지문은 위에서 언급한 언어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그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언어의 변화를 (다)에서까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다)의 뒤에 들어가야 가장 알맞다.

18.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① 자의성
- ② 역사성
- ③ 사회성
- ④ 창조성

[해설] 정답 ②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 역사성

19.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① 모음조화의 현상의 변화
- ② 청자높임법이 실현된 단어의 변화
- ③ 신조어의 등장과 방언의 실현
- ④ 아래아, 순경음비읍의 변화

[해설] 정답 ③
통시태는 그 언어가 시간축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③번 신조어의 등장은 이전에 해당하는 언어를 알 수가 없고, 그 언어의 변화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통시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열내지 스물
- ② 음식을 각자 먹을만큼 먹어라.
- ③ 여기서부터가 서울입니다.
- ④ 십이억 삼천사백 오십육만 칠천팔백 구십팔

[해설] 정답 ③ (국어 교재 1권 p. 136-138)
① 열 내지 스물 ('내지'는 앞뒤로 띄어쓰기한다.)
② '먹을 만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만큼'은 띄어쓰기.
③ 여기서부터가 (조사가 둘 이상 겹쳐져도 붙여 쓴다.)
④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만, 억, 조'

[21-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緣二分이며 하눌 모를 일이런가.
나 흐나 점어 잇고 ㉠님 흐나 날 괴시니,
이 먹음 이 사랑 견줄디 노여 업다.
평평生성에 願원호요디 ㉡흔디 네자 호얏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클이논고.
엇그제 님을 괴서 廣광寒한殿년의 올낫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下하界계에 느러오니.
울 저귀 비슨 머리 ㉢헛틀언 디 三삼年년일쇠.
燕燕脂지粉분 잇디마는 놀 위호야 고이 호고.
먹음의 미친 실음 疊疊疊疊이 빠혀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인生生은 有有限한흔디 시롬도 그지 업다.
無무心심한 歲歲月월은 물 흐르 듯 흐느고야.
(가) 炎염凉凉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21. 다음 중 (가)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 ①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
- ② 임에게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한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④ 임에게 연락없이 세월만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해설] 정답 ④ (19년 10월말 모의고사 문제)
(가)부분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부분이다.
(가) 염낭(炎凉)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현대어 해설]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뀜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오니(계절이 빨리 바뀜, 시간이 빨리 흐름)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느낀 일이 많기도 많구나.

22. 밑줄 친 ㉠-㉣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님 흐나 날 괴시니: 님 하나 오직 날 사랑하시니
- ② ㉡흔디 네자 호얏더니: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 ③ ㉢헛틀언 디 三삼年년일쇠: 형클어진 지 삼 년이라
- ④ ㉣디느니 눈물이라: 지나가는 것은 눈물이라.

[해설] 정답 ④ (교재 2권 p. 257-258)
㉢디느니 눈물이라: 흐르는 것은(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지문은 정철의 '사미인곡'.

23. 다음 중 맞춤법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그 사람은 교장선생님으로써 할 일을 다했다.
- ② 이 문제를 대화로서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③ 나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
- ④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해설] 정답 ③ (교재 1권 p. 187)

-로서: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냄 예) 학생으로서
-로써: 수단, 방법, 재료, 원료 예)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다.

24. 다음 중 표준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조용히
- ② 번듯이
- ③ 따뜻이
- ④ 꼼꼼이

[해설] 정답 ④ (교재 1권 p. 143)

꼼꼼이 -> 꼼꼼히 (0)

25. 남사당패 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버나: 대접과 첻바퀴 등을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놀이.
- ② 어름놀이: 줄꾼이 줄타기를 하면서 채담을 주고 받으면서 가창까지 놀이.
- ③ 덜미: 꼭두각시놀음이라 불린다.
- ④ 살판: 판소리를 부르면서 마당에서 하는 놀이.

[해설] 정답 ④

살판: 몸을 날려 공중에서 회전한 뒤 바로 서는 놀이.

오늘날 텀블링과 유사한 놀이다.

- 남사당패: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남사당패 놀이의 여섯 중 목인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의 연희를 공연했던 남성 집단.

** 모두 애쓰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

군무원 대장부 학원

<http://g.daejangbu.com/>